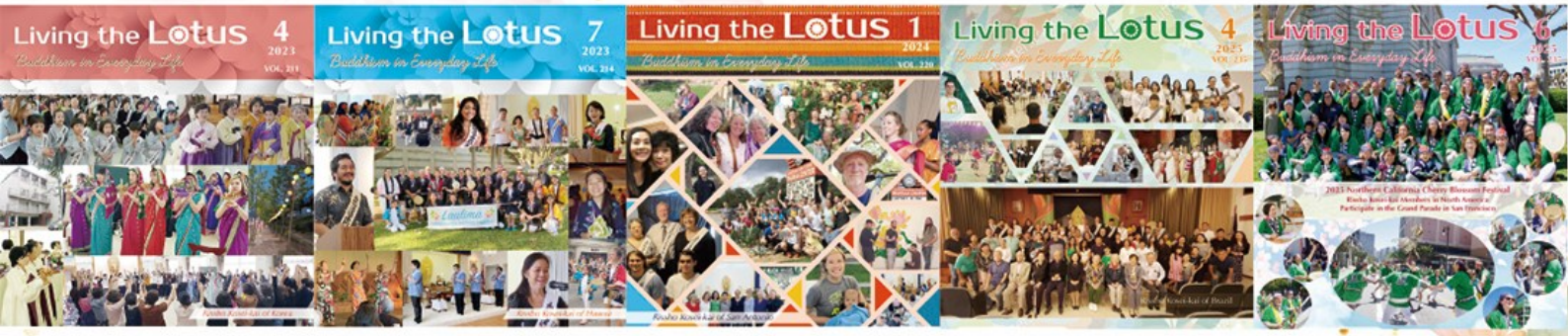
Living the Lotus 10

Buddhism in Everyday Life

2026
VOL.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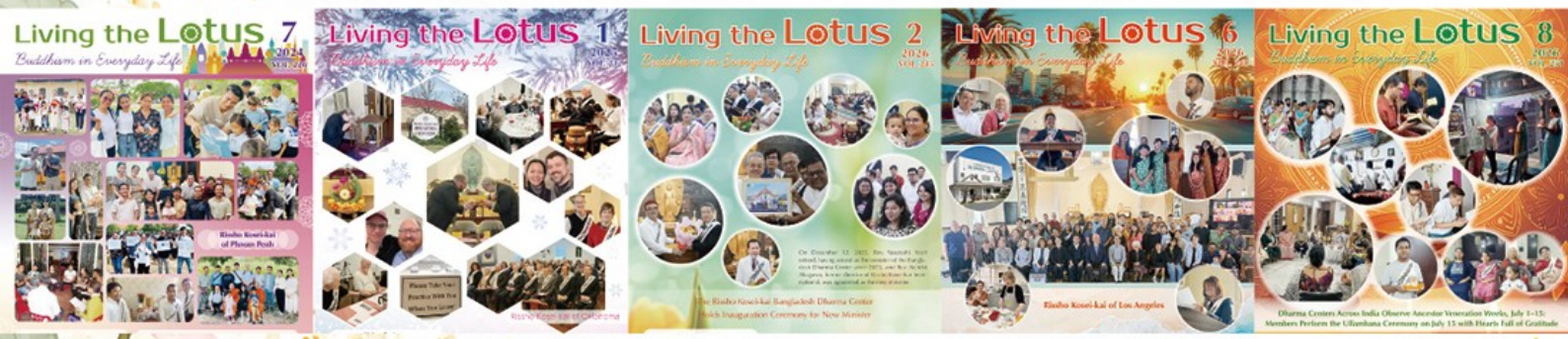


매월 'Living the Lotus'를 애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지는 여러분들 덕분에 이번달로 창간 21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가지로 도움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입정교성회 영어 사이트 리뉴얼과 함께 지금까지 PDF형태의 뉴스레터로 발행되어 온 'Living the Lotus'는, 11월부터는 웹 매거진으로서 새로운 형태로 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 호가 PDF판 최종호가 됩니다만, 'Living the Lotus'는 계속해서 회장법화를 비롯해 일상 생활에 불교를 활용하기 위한 여라가지 기사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웹 사이트를 통해 'Living the Lotus'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본 지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Living the Lotus
Vol. 253 (October 2026)

발행:입정교성회 국제전도부
〒166-8537
동경 스기나미구 와다 2-7-1 후몬메디아센터3층
Tel:03-5341-1124 / Fax:03-5341-1224
E-mail:i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
편집 책임자:아까가와 케이치
편집장:미카와 사치 / 교열자: 이행자, 성숙희, 박현철 김은미

입정교성회는, 1938년 니와노닛쿄 개조님과 나가누마 묘코 협조님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법화 삼부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재가불교 교단입니다.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 속에서 석존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에는 니와노 니치코 회장선생님과 함께 우리들 회원은, 불교도로서 포교 전도에 힘쓰면서 종교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국내외에서 여러 평화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Living the Lotus-Buddhism in Everyday Life(법화경을 살아 간다~생활 속 불교)라는 타이틀에는,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법화경 가르침을 실천하여, 진흙탕물에 피는 아름다운 연꽃과 같이, 인생을 풍요롭고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회장법화

삶도 죽음도 묘법 안에 있다 ①

니와노 니치코(庭野日鑛)
입정교성회 회장



「죽음」을 초월한다

'불도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생로병사(生老病死)를 초월한다"는 것이다'——이것은 불교의 생명관과 사람의 죽음에 대해 개조님께서 저술하신 법화의 한 구절입니다.

'죽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므로,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 '죽는 것이 무섭다' '죽고 싶지 않다'고 하는 불안과 공포와 고통을 '초월하는 것', 즉 극복하는 것은 확실히 불도의 요점 중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심감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자타의 행복을 바라며 신심(身心)을 갈고 닦는 것이 불도 정진입니다.

그 불도의 요점 중 한 가지인 '생사'를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죽음은 '위대한 생명'이라는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며, 생명에 대해서는 이론물리학자인 사지 하루오(佐治晴) 선생의 저술을 참고로, 우리들의 생명은 우주와 일체이며, '요컨대 우리들은 매일 영원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명관을 전해 왔습니다.

법화경의 가르침과도 통하는 우주적인 시점으로, '생명'을 주시해 보면 우리들은 모두 우주 발생 이래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계속되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죽음이 무섭지 않게 되고 죽음과 관련된 두려움도 걱정도 옅어질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죽음과 마주하여, 부처의 생명은 영원하다고 설하는 법화경 신앙에 의해 생사의 고를 극복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시인인 미야자와 켄지(宮沢賢治)입니다.

켄지는 '나는 머지않아 죽으리라/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고 시작되는 시를 통해서 자신의 심경을 "내가 죽어서 허공으로 돌아갈 때/ 다시 나라고 느낄 수 있을까/ (중략)/ 그 본원의 법을 묘

법연화경이라고 이름 붙인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우주라는 '위대한 생명' 그 자리로 되돌아가, 이윽고 다시 태어난다, 그것이 법화경에 나타나 있다, 라고 본 것이지요.

법화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자신을 알아차리고, 병의 고통과 번뇌에서 구제받은 켄지는, 더욱 더 '삶, 이 또한 묘법의 삶이며/ 죽음, 이 또한 묘법의 죽음'이라고 글을 썼습니다.

병을 얻은 '삶'도, 몸으로 닥쳐오는 '죽음'도, 묘법(진리)의 작용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들

미야자와 켄지가 이 시(1929년 2월)를 쓴 것은, 죽기 4년 정도 전인 33세였습니다만, 그 젊은 나이에 이런 생사관을 세운 사람은 아주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법화경의 가르침이라는 뒷받침이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죽은 후에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어떻게 되는 걸까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지금도, 죽은 후에도 계속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고 가르침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묘법연화경과 연이 닿아 그것을 알게 된 켄지의 기쁨은, 같은 신앙을 하는 우리들 또한 맛볼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자신도 이전에 '편안하게 생명의 고향으로 돌아가신 개조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 저렇게 죽을 수 있다면 좋겠다"하며 차분한 마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린 그 심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도 선인들을 통해 생명에 관한 연찬을 계속하며 신앙해 온 덕분이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죽음'은 자타의 구별없이 찾아옵니다. 진심으로 이해가 되는 죽음이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더욱 '생로병사를 초월한다'는 것이 인생의 커다란 테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므로 더욱 더 지금 생명이 있다는 것에 기쁨을 음미하여 그 '지금'을 많은 사람들과 서로 화합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주 발생 이래, 연면히 계속되어 온 '영원한 생명'의 흐름 속에 현세가 있으며, 우리들이 지금 '생로병사'의 고를 짊어진 채 그 현세를 살아가는 이유란 무엇인가——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성』 2026년10월호)



Interview

관세음보살을 이상으로 삼아, 자비로운 마음으로 정진을

방글라데시 교회　프리요 • 론존 • 보루아

언제, 어떤 일을 계기로 입정교성회 신앙과 만나게 되었습니까?

저는 상좌부 불교를 신앙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났으며, 두 명의 삼촌이 상좌부 불교 승려였던 환경 속에서 어릴 때 부터 부처님에 대한 돈독한 신앙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방글라데시 정부 직원으로서, 집이 있는 치타공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윽고 그곳에서 약 400키로 떨어진 실렛으로 전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실렛은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로서 발전한 도시로 불교사원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있는 정도였으며, 언제 부터인가 사원 참배나 부처님 가르침과 연닿을 기회가 적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2000년의 어느 날, 친구 비프로프 보루아와 친척 오시무 보루아와 만났습니다. 그 때 이 둘에게 치타공에 입정교성회(당시 연락소)라는 재가불교 교단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당시 거점장이셨던 비만 쿠마르 보루아님을 소개받았습니다.

두 친구의 따뜻한 권유를 받아 근무지인 실렛에서 멀리 떨어진 치타공까지 와서,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 독경공양과 법좌에 자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상좌부 불교와 입정교성회는 모두 부처님 가르침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행과 실천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좌부 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승려가 팔리어로 경전을 독송하며 설법을 합니다. 한편, 재가의 신도는 예배와 독경, 보시 등의 의례적인 실천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팔리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대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충분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요•론존•보루아님

그러나 입정교성회에서는 회원 스스로가 벵갈어로 법화경을 함께 독송하며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감동했던 부분은, 입정교성회의 회원 여러분께서 재가 불교도로서 가정과 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람들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여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신선하고 감동적인 체험은, 제 마음 깊숙이 울리며 '나도 이 길을 걷고 싶다' 고 마음 속 깊이 바라

Interview

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입정교성회에 입회하였습니다.

그 두 사람과의 만남이 신앙의 커다란 전환기였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입정교성회와 법화경 가르침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많은 공덕과 마음의 의지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두 사람과의 만남은 제 인생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둘도 없는 소중한 인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정교성회를 찾아갔을 당시, 긴 시간에 걸쳐 방글라데시에 법의 씨앗을 뿌려 주신 이이자와 가즈마사님(飯澤一雅/전 입정교성회 오이타 교회 교회장님)이 일본에서 포교를 하러 와 주셔서 귀중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정교성회에서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매일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매주 금요일에 근무지인 실렛에서 치타공에 있는 입정교성회를 방문하여 승가 여러분들과 함께 독경공양과 법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입정교성회의 훌륭한 가르침을 실렛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친구와 지인을 독경공양과 법좌에 참석할 것을 권유했는데 그 결과, 덕분에 25세대를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도량에서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 독경공양의 사회 역할을 하고 있는 프리요·론존님

법화경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 가장 인상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법화경에는 문수보살과 미륵보살, 상불경보살 등, 실로 많은 보살이 등장합니다. 그러한 보살에게는 모두 각자 훌륭한 덕과 역할이 있으며,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삶의 본보기가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자비의 상징인 관세음보살에 강한 매력을 느끼며 동경과 함께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제25에 '삼십삼신을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 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관세음보살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러가지 모습으로 바꿔서 상대에 맞추어 구제의 길을 나타내는 자비의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관세음보살을 이상으로 삼아, 앞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고민하고 괴로워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도록 정진하고 싶습니다.

입정교성회 가르침 중에서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먼저 남부터' 라는 말을 좋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남부터' 라는 것은 법화경 가르침의 진수인 보살의 삶이며, 보살행의 실천 그 자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성회에서는 평소 스스로가 깨달음을 구하면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행동하며 자타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걸어 나가는

Interview

것이 보살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 현실 사회를 보면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므로 더욱 '먼저 남부터' 를 모토로 삼아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며 행동해 나가는 곳에 저희들의 진정한 기쁨과 삶의 보람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입정교성회의 어떤 부분에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까?

입정교성회의 여러가지 수행 중에서 저는 선조공양과 법좌, 한끼 바치기 운동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경공양을 통해서 부처님과 선조님께 감사를 바치며, 법좌수행을 통해서 승가 여러분과 함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배우며 서로의 체험과 신앙의 공덕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끼 바치기 운동은 매월 수차례, 스스로 한끼를 바쳐서 공복감을 느끼며 전세계에서 빈곤과 병 등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하며 헌금을 한다는 '동비·기도·보시' 의 불교 정신에 근거한 구체적인 보살행의 실천이며, 지금 시대에 맞는 평화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수행 목표와 장래의 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평소 제창하고 있는 회원강령에는 '인격완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와 '가정·사회·국가·세계의 평화경(상적광토) 건설을 위해 보살행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 는 수행 목적과 규범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회원강령에 따라 매일 수행하여 정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장래의 꿈은 3년후에 저는 정년을 맞이합니다만, 제2의 인생의 새로운 스타트 라인이라고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포교전도와 보살행 실천에 한결같이 임하여, 보람있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교회의 법좌에 참가하고 있는 프리요·론존남(건너편 왼쪽에서 두번째)

부처님의 본원속에 살아간다

부처님과 같이 되고 싶다

입정교성회 개조 니와노 닛쿄(庭野日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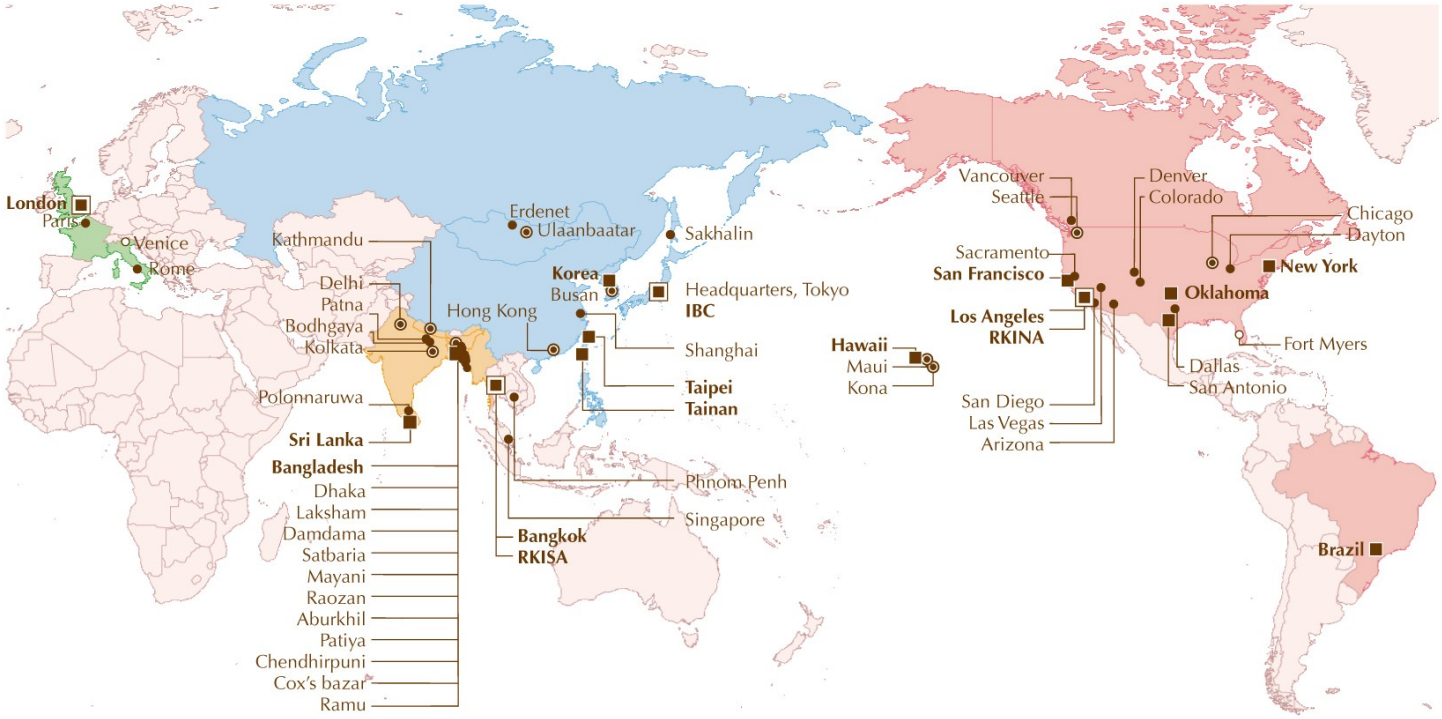
우리들은 법화경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여 조금씩이라도 보살행을 하게 해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걸음씩이라도 불도, 즉 부처가 되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처가 된다' 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저는 조금이라도 실천하기 쉬운 쪽으로 생각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붓다' 라는 말은 원래 '깨달은 자' 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있는 그대로의 상(相(상)과,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한 점의 구름도 없이 꿰뚫어 보는 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저희들은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항상 올바르게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지키고 그 길을 걸어 나감으로서 '깨달은 자' 가 되려고 하는 것이 보살행이며, 불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께서는 법화경의 '방편품' 에서 '나는 본래 서원을 세워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나와 같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게 하고자 하였다' 고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나와 똑같이 구름 하나 없는 지혜와 자비로 넘친 경지로 도달시키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본원을,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이러한 말을 듣고 '그렇다고 해도 부처님처럼 될 수 있을리가 없다' 고 다짜고짜 부정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부처님께서 보증해 주시며 손을 내밀어 주신다면 나도 반드시 "깨달은 자"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희망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쪽이 훨씬 즐겁고 헤매지 않고 인생을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흔히 자신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만 한정된 것으로 여기고 눈 앞의 즐거움만을 추구해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라도 '생로병사' 의 '사고' 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통(애별리고)과, 싫어하는 것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고통(원증회고) 등, 정신적인 고통도 따라옵니다.
거기다 우리들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보살행을 한다면 그 공덕에 의해 다시 태어날 때마다, 자신의 행복에만 집착하는 마음에서 조금씩 멀어지며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생각할 수 있는 큰 마음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석가모니께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나와 같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게 하고자 하였다' 고 서원하신 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처님과 같은 깨달은 경지에 가까워질 수 있는 소질이 있다는 것을 보증 받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니와노 닛쿄 혜세법화집1『보리의 싹을 틔움이니라』p.108-110

Rissho Kosei-kai International

Make Every Encounter Matter

A Global Buddhist Movement



Information about local Dharma centers

facebook

X

We welcome comments on our newsletter Living the Lotus: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